

경선 마무리 수순... 뒤늦은 정책 선거

더민주, 광주서 60대 이상 맞춤형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당, 다음주부터 경제·복지 등 단계적 제시 새누리, 22일 광주발전 선언 및 서약식 가질 예정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번 주말과 휴일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이 정책 공약 발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은 야권의 분열과 야권 통합·연대 논란 속에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후보들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노인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건강관리, 복지일반, 지역특화 등 5개 분야 10개 실천방안으로 구성됐다. 소득보장을 위

해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최빈곤층 40만명에게는 실질적 기초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100만개 확대·근로수당 40만원 인상,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등이다. 모든 병원의 간병서비스 의무화, 불효자 방지법 제정, 경로당의 종합복지센터화 등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경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다음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제와 복지, 문화, 환경, 생활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는 공정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복지분야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아동·청소년·어르신 복지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화분야에는 문화 생산 및 소비 활성을 위한 환경 조성, 환경분야는 생태와 에너지·도시의 조화를, 생활분야는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등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오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6명의 광주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광주 발전 선언 및 서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광주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 발전 생산도시 조성사업 완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청년 희망 아카데미 유치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예비 엄마와 엄마들을 위한 미래형 보육 플랫폼인 '마더센터' 광주 유치 ▲'자율상권법' 제정 통한 소상공인 육성 ▲상가임대차계약 특례 조항 마련 통해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등을 약속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더민주 "어르신 복지 책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박해자)은 17일 광주지역 총선 후보 확정자 및 경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정책공약인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천 불만 비박계 탈당·무소속 출마 검토

친박, 김무성 대표 없이 공천안 추진 시도하다 무산 '비박연대' 공개 거론...총선 '다여다야' 구도 재편 관측도

새누리당 4·13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17일 정면 충돌했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비박계 대다수 의원들은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오전 정례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날이었으나 김무성 대표는 전날 공지를 통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가 공판위에서 열린 공천심사 결과를 승인하지 않

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친박계는 회의를 강행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간단히 회를 치는 했으나 사실상 김 대표만 빠진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된 것이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은 뒤 김 대표에게 회의를 요구했다. 전날 기자회견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김 대표도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요구를 듣자마자 "사과할 일 아니다"고 말했다. 비박계 의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탈박(脫朴) 인사로 꼽히는 3선의 진영 의원은 공천 탈락 이후 거취를 고민하다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간 몸 담은 새누리당을 떠난다"며 탈당(脫黨)을 선언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비박연대'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권 인사지만 보수적 경색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4·13 총선 현장

장병완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의무화"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 갑) 의원은 17일 4·13 총선시리즈 공약 열두번째로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의무화를 추진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홍기훈 "부친 유훈 따라 호남정치 복원"



국민의당 홍기훈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17일 부친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유훈을 받아들여 호남정신 및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향한 호남의 역사를 이끌어 왔고 군사독재시절 국무총리 제안을 받고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부친의 일화 등을 들었다"면서 "깨끗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맞서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총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중 "광주 복구울로...당 결정 수용"



국민의당 김하중 예비후보는 17일 "당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광주 복구 울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며 "당령을 따르는 것은 당원의 기본 의무이자 정당정치의 초석이라 믿는다. 서구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하지만 당명을 받들어 새 출발지 복구울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약자 위한 정치·정권교체 선봉"



국민의당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17일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새로운 정치와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약자를 위한 정치와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지난 8년간 지역민과 함께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남도음식 K-food 벨리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7일 "도시농업 활성화와 외식업체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복구에 로컬푸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호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복구에 발효·김치·육류·해물·찜·탕음식을 비롯해 한정식과 힐링푸드, 약선푸드 등 테마별로 특화된 남도음식 K-food 벨리를 조성해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복구로 유인, 관내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전문가·시민사회 소통 강화"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동남 갑 예비후보는 17일 "광주 현안 해결 및 지역 목소리 강화를 위해 지역의 학계는 물론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뒤엔 지역 현안 해결에 미온적인 면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전문가들과 국정현안을 밀접하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최경미, 광산을 출마 선언



민중연합당 최경미 광산구의회 전 부의장은 17일 4·13 국회의원 총선거 광주 광산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부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총선에 도전한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엄마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 김연욱, 서구를 출마 선언



새누리당 김연욱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가 17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입성한다면 호남 인재 등용을 당당히 요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이 바로 정치혁명"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오형근 "재래시장, 즐길거리로 특화"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남광주해뜨는시장·산수시장 등 재래시장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접목한 문화구심점 역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전통시장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시장 기능 특화하는 한편,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푸른길 공원에 이르는 길을 야간투어길로 연계시키고 문화공연 등을 접목 '낭만이 넘치는 야시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아시아청년문화축전 매년 개최"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아시아 국가·시대·분야별 문화를 융복합하는 '아시아청년문화축전'을 매년 개최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시켜 개청 50주년이 되는 2023년에는 동구 인구 20만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비롯 '광주세계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시켜 체험형주형 국제 축제인 아시아청년문화축전을 성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종희기자 golee@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